

안녕하세요~
아사검입니다.

오늘부터 이곳에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한 달에 한 편씩 간단한 소개글과 함께, 여러분의 영혼을 포동포동하게 살찌워줄 수 있는 좋은 꺼리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10월 3일은 개천절입니다.

많은 직장인 분들이 9월 30일과 10월 1일 휴가를 내고는 9일간의 연휴라며, 3일까지 놀러가 시던데..... ㄱ.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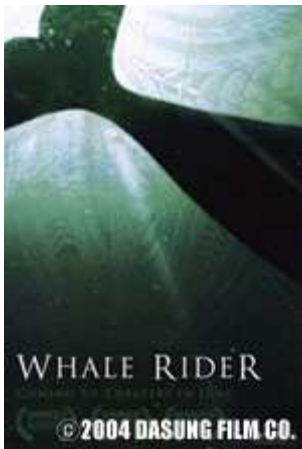
여기 오시는 분들은 나라를 사랑하시는 의병 분들이니, 그런 분들 안계시겠죠?

혹시 어디 놀러갔다 돌아와서 이 글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소개하는 꺼리와 함께 내일의 일상을 준비해보시길 바랍니다.

개천절에서 개천(開天)은 '하늘을 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 있는 하늘입니다. (주1)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꺼리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Whale Rider

- 자신의 부족을 진정으로 사랑한 소녀의 이야기
(10월 8일 국내 개봉 예정 영화)

웨일라이더의 배경은 뉴질랜드의 마오리족입니다.

'반지의 제왕' 이후로, 뉴질랜드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많이 늘었죠? 대부분 뉴질랜드하면, 우선 멋진 자연 풍경을 떠올립니다. 이 때문인지 최근에는 한국 영화들도 뉴질랜드로 가서 촬영을 하더군요.

이 영화 역시, 뉴질랜드의 멋진 자연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영화의 전부는 아닙니다.

이 영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마오리족의 삶입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는 원주민의 모습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는 많은 영상물들이 서양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다보니, 그들의 잘못된 관념이 그대로 투영된 것들이 많은데, 여기서는 비교적 그러한 것에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마오리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관념들은 영상물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학교에서 세계사를 공부하면서 생긴 것입니다.

서양 역사학자들에 의해 기술된 세계사를 공부하다보니, 그 과정에서 그들의 잘못된 관념을 그대로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관념들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 가장 문제가 되는 큰 두 가지는,

'역사는 진보한다'

'서양인을 제외한 다른 민족은 미개하다'

입니다.

첫번째, '역사가 진보하다'는 관념은 자연스럽게 고대사회를 원시인 사회, 매우 수준이 낮은 사회로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자들이 유물을 조사하다보면, 오래된 유물들 중 현대 과학으로는 재현이

불가능한 매우 수준 높은 것들을 많이 발견하곤 합니다. 이럴 때면, 쉽게 학설을 바꾸기 싫어 하는-관념에 매여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 않는-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들을 단지 '불가사의'로 치부하고, 현재 학설을 뒷받침하는 유물들만 역사자료로 인정 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현재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세계사는 실제 역사가 아니라, 한쪽 면만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역지로 짜집기된 역사입니다.

모든 학문이 그렇듯이 역사라는 학문에도 '정답'은 없습니다. 수많은 오류의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느 새, 잘못된 서양학자들의 시각마저 그대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잘못된 관념은 잘못된 역사인식으로 이어지는데, 그것이 너무나 찬란했던 많은 고대문명들을 미개한 원시문명으로 치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고대사를 포함해서, 아프리카나 중동 등 수 많은 곳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났던 매우 수준 높았던 문명들이 포함됩니다. 이것들이 모두 돌도끼로 짐승을 잡아먹는 원시인들의 역사로 인식되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 나오는 마오리족도 고대에는 수준 높은 정신문명을 가졌던 민족입니다. 그들의 한 부류가 지금의 뉴질랜드에 떠내려와 정착한 것이 마오리족입니다.

그들의 선조가 고래를 타고왔다는 신화 자체가, 진보라는 이름하에 파괴와 살육을 일삼는 현대문명보다 우월한 정신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를 단편화 시켜서 바라본다면, 기술의 진보는 발견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의 문명을 포괄적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진보'라는 성장곡선을 그리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의 역사는 찬란하게 발전했다가, 망했다가, 다시 새로 시작했다가 하는 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화로 알고 있는 것들도, 나중에는 신화가 아닌 역사로 밝혀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흔히 세계사 시간에 접하는 고대-중세-근대-현대로 이어지는 '역사는 진보한다'는 관념을 유지하려다보니, 이전의 문명이 지금보다 발전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게 될 뿐입니다.

이는 오늘 같은 개천절날, 우리가 우리의 역사를 똑바로 바라볼 수 없게하는 큰 장애물이기도 합니다.

두번째, '서양인을 제외한 다른 민족은 미개하다'는 관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우열감을 쌓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관념을 습득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서양인이 아니다보니, 자연스럽게 이 관념은 여기에서 확장하여 '백인이 가장 우월하고, 다음은 황인, 그 다음은 흑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최근들어 우리 사회에서 심각하게 불거져나오고 있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동남아인들에 대한 차별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인종차별이 옳지 않다는 것을 모두들 느끼면서도, 자신과 다른 모습을 한 민족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지는 시각은 안타깝게도 '호기심'입니다. 애정을 가진 진지한 눈으로 다른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바라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서구문명이 가져다준 편리한 과학기술을 문명의 진보로 착각하며, 이것을 획득하지 못한 민족을 '미개하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현대문명과 거리가 있어 보이는 토속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원주민을 바라볼 때, 우리의 이 잘못된 시각은 극대화됩니다. 이것은 모두 잘못된 관념에서 비롯된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올바른 시각은, 오랜 시간동안 지켜온 그들의 전통과 문화 속에 숨어 있는 정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 대부분은, '발전'이라는 이름하에 고대의 찬란한 문명 속에서 이어져 내려오던 위대한 정신들을 거세당했기 때문에, 비록 형식이나마 그것들을 유지하고 있는 그들이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존재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영적성장을 이룰 수 있는 많은 중요한 코드들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영화를 소개하면서, 그와 관련된 우리의 잘못된 관념 2가지를 얘기드렸습니다.

실제로 영화를 보실 때, 위 2가지를 자신에게 한 번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는 위 2가지에서 자유로운지?



- 맑은 영혼을 가진 소녀, 파이키아는 할아버지의 두터운 관념앞에 상처를 입는다. 아버지의 귀향. 그리고 현실과 타협하게 되려는 순간, 소녀는 고래의 음성을 듣고 말한다.

파이 : '집으로 돌아가야해요.'

아버지 : '왜?'

파이 : '단지 그래야만 해요.'-

끝으로, 영화의 스토리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이 영화의 스토리는 비단 마오리족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닌, 바로 우리 삶의 단편이기도 합니다.

불과 몇 일전에도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분들이 성묘도 하고, 차례도 지냈겠지만, 지금의 우리 명절은 대부분 형식만 남은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역사와 정신을 올바르게 아는 어른 분들이 많이 안계시는 지금, 오늘날 자손들에게는 많은 절차와 형식이 '왜?'라는 질문에 답변되지 못한 채 강요되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미를 상실한 형식들은 대부분 잘못된 관념속에 둘러싸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화 웨일라이더에서 족장 할아버지가, 남자만이 선지자의 피를 이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10월 3일은 개천절입니다.

우리 나라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건국을 '開國(나라를 열다)'이라 하지 않고, '開天(하늘을 열다)'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천손으로서의 자긍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그 천손은 핏줄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실천하는 후손이 천손입니다.

영화 웨일라이더를 보시면서, 뉴질랜드의 청명한 푸른 하늘, 푸른 바다도 감상하시고, 천손으로서의 오늘날 자신도 되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 영화의 주인공 '파이키아'의 대사를 옮깁니다.

"저는 선지자로서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민족이 앞으로 나아가야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모두 함께.

우리 모두 힘을 모아."

* 본 글에 사용된 이미지는 원저작권자인 영화제작자와, 이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 배급사에 있습니다. 상업적인 용도로 이미지를 제작시, 이들에게 반드시 허락을 맡아야 합니다.

주1 : 우리 민족의 3대 경전 중 하나인, 삼일신고(三一神誥)의 하늘 편에는 '하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蒼蒼이 非天이며 玄玄이 非天이라. 天은 無形質하며 無端倪하며 無上下四方하고 虛虛空空하여 無不在하며 無不容이니라.

해설 : 저 파란 창공이 하늘이 아니며, 저 까마득한 허공이 하늘이 아니다. 하늘은 얼굴도 바탕도 없고, 시작도 끝도 없으며, 위아래 둘레사방도 없고, 비어 있는 듯하나 두루 꼭 차 있어서 있지 않은 곳이 없으며, 무엇이나 싸지 않은 것이 없다.